

학소위-정경대 논쟁, 학소위 존폐 논의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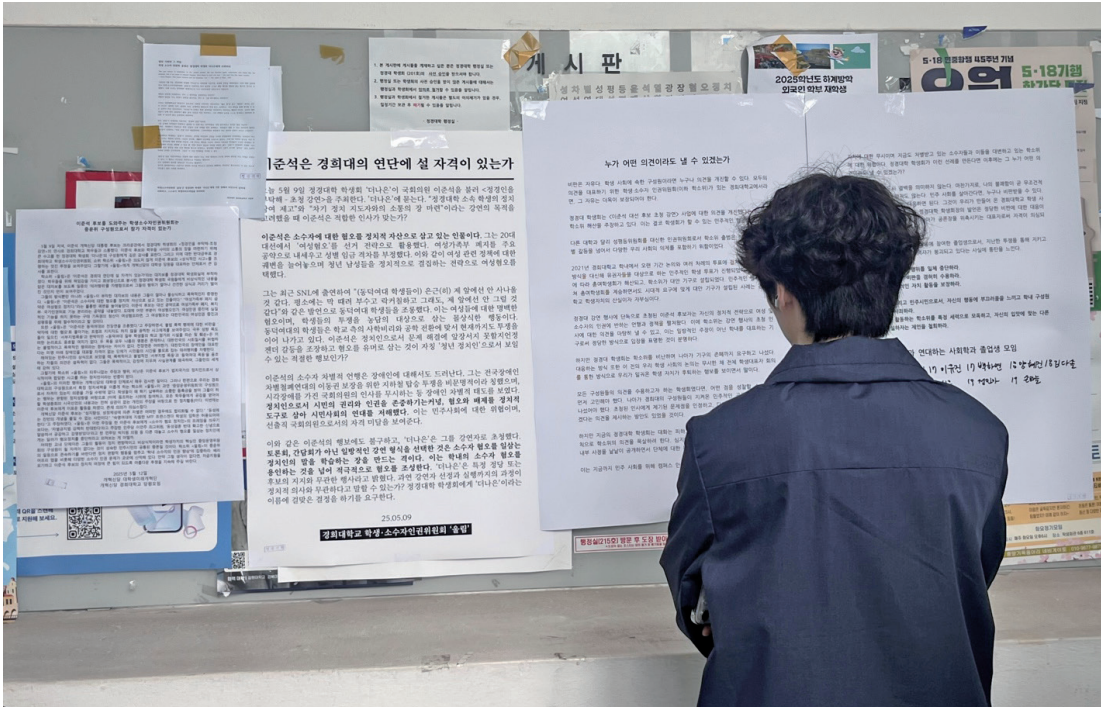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정경인을 부탁해-초청강연〉에 이준석 대통령 후보자를 섬외한 정경대 학생회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와(학소위) 사이 논쟁이 학소위 존폐 논의로 번지고 있다.

해당 논쟁은 지난 9일 학소위가 정경대 학생회 주관 강연을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학소위 측은 ‘이준석은 경희대의 연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및 장애인 차별 발언을 지적하고 해당 강연의 기획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13일,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학내 구성원의 정치 참여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한 행사일 뿐, 선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아울러 학소위에 ▲공식 사과문 게재 ▲정경대 학생회실 앞 대자보 철거 ▲트위터상 유포된 허위 사실에 책임 있는 조치 및 상황 공유를 요구했다. 동시에 5월 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로 학소위 존폐 여부를 논의하고, 대안으로 총학 산하 ‘인권복지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경대에 붙은 '이준석은 경희대의 연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대자보를 읽고 있는 학생.

(사진=하시언 기자)

학소위 이가현(정치외교학 2023) 위원장은 “자치기구의 존폐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인물을 초청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경고와 민주적 공론장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학소위가 수행해온 활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며 대응했다”고 말했다.

학소위의 외부 연대 활동에 이 위원장은 “학내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외부 단체와의 연대를 이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정 조치나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학소위는 올해 예산을 ▲홍보물 및 대자보 인쇄비 ▲미리캔버스·산돌구름·어도비 프로그램 사용료 ▲내부 세미나 도서 구매비 ▲시국 대응 활동비 ▲젠더퀴어 교육 교양 과목 제정 및 비건 학식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학소위 존폐 논의 발의를 예고하며 “대자보 사태는 종료

됐다고 보지만, 학소위 활동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존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안기구 마련을 주장한 배경에 “권고안 한두 개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 산하에 인권 전담 기구를 두는 것이 전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안된 대안 기구 ‘인권복지위원회’에 대해 신 회장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행정적 역할에 집중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대 학생회는 지난 23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폐지 및 대안기구 설립 제언을 위한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발의안’을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학내 환경 개선에서의 역할 불분명 ▲자치기구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 ▲운영 기준의 불투명성 ▲협의 없는 정치 참여 ▲예산 운용 문제 ▲개선 가능성의 한계 ▲보다 적절한 대안의 가능성 등이 근거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학소위는 오는 30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다음달 2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시확운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희인존 입장 논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로 ‘시끌’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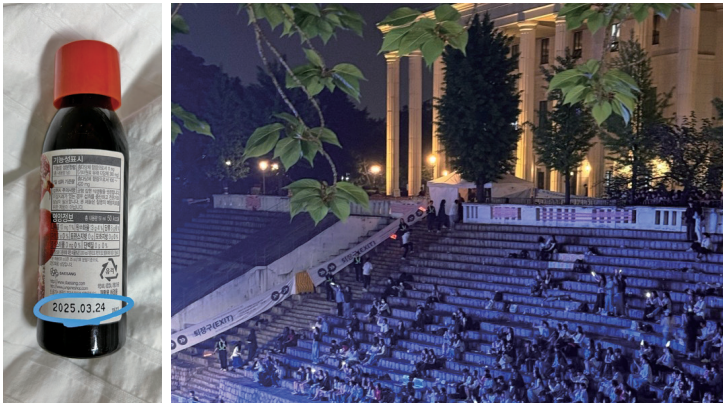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대중제에서 노천극장 입장 불가,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의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입장 논란 불거져 총학, “수용인원 일찍차입장막이”

노천극장 입장 불가 논란은 아티스트 공연 중 빈자리가 있음에도 입장이 불가능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축제 첫날인 14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총학생회가 입장을 못하게 했다”, “작년에는 재입장이 됐는데 올해는 막았다”는 등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입장에 실패했던 김상범(미디어학 2021) 씨는 “입장 가능 도장을 받고 줄을 서 있었는데, 빈자리가



총동연 주점에서 판매된 유통기한 2개월 지난 홍초(좌), 아티스트 공연 중에도 빈자리가 많았던 노천극장(우).

(사진=에브리타임 캡처본)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장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준서(사회학 2025) 씨는 “공연 도중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다시 들어 가려고 줄을 섰더니 스태프가 화를 냈다”고 밝혔다.

입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입장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부스를 빨리 마감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캠 엄규민

(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1일 차에는 예년보다 수용 인원이 일찍 찼기 때문에 입장과 도장 부스를 일찍 중단했고, 이로 인해 재입장 학생과 새로 입장하는 학생 모두 입장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 도장 부스를 일찍 마감했던 것은 실수였다”며 “2일 차에는 도장 부스 운영 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입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 재입장을 막았다고 느끼셨다고 추측하고 있다”며 “불편을 겪으신 모든 경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송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통기한 지난 홍초 판매 총동연, “피해 구제 적극적 진행할 것”

한편, 대중제 셋째 날인 16일, 총동연 주점 ‘Wizard’s Lab’의 메뉴 ‘체력 포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홍초를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에브리타임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판매한 주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총동연 주점에서 구매한 홍초의 유통기한이 2025년 3월로, 이미 2개월 정도 지났다는 내용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홍초는 13일에 총동연으로 배송돼 16일에 판매됐

다. 해당 홍초가 포함된 메뉴는 주점 전체 메뉴 중 ‘체력 포션’이 유일했다. ‘체력 포션’ 메뉴 구매 시 홍초 1병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매됐다.

에브리타임 제보 다음 날인 지난 20일, 총동연 양명호(생물학 2023) 회장은 총동연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양 회장은 사과문에서 “홍초 제품의 납품을 담당하는 업체의 관리 소홀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배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과 총동연은 피해 구제 및 보상 방안 등을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홍초 구매자 중 총동연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한 학생들에게 10,000원을 배상했다. 홍초가 포함된 메뉴인 ‘체력 포션’의 가격 3,000원, 테이블비 5,000원, 사과 의미담은 보상액 2,000원을 더한 값이다. 배상은 총동연과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했다.